

『운포이로하슈』(運歩色葉集)에 보이는 2단활용의 1단화현상에 대한 일고찰

-제(諸) 고사전(古辭典) 및 기리시탄(キリシタン)사전과 비교를 중심으로-

김 용 균*

차 례

- I. 서론
- II. 2단활용의 1단화 실태
- III. 1단화의 전체적인 경향
- IV. 결론

I. 서론

본고에서는 무로마치(室町 : 1333~1603)시대에 있어서 2단활용의 1단화현상에 대한 전체적인 고찰을 위한 전 단계로서 당시 고사전 중 『운포이로하슈』(運歩色葉集 : 1547~1548)에 보이는 1단화현상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2단활용의 1단화현상이란 상하2단활용동사 및 하2단형활용조동사가 각각 상1단활용 및 하1단활용으로 변화하는 것을 말한다.

이와 같은 현상이 일본어사상(日本語史上), 특히 문법사상(文法史上)의 커다란 변화로서 인식되고 있는 주된 이유는 무로마치시대에 완료된 라행(行)변격활용동사의 4단화현상 및 에도(江戸)후기에 완료된 나행변격활용동사의 4단화현상과 함께 동사 활용형식의 단순화, 다시 말해 고대어 9종(4단·상1단·상2단·하1단·하2단·나행변격·라행변격·카행변격·사행변격)에서 근대어 5종(4단<5단>·상1단·하1단·카행변격·사행변격)으로 활용 종류가 감소해 가는 일련의 단순화 과정에 결정적인 계기를 제공했다는

* 고려대학교 강사

점 때문일 것이다.

1단화현상은 활용방식 즉 ①활용어미의 모음이 교체되는 강변화(強變化: 4단·ㄹ행변격), ②어간에 르ㄹ어미가 첨가되는 약변화(弱變化: 상1단·하1단), ③활용어미의 모음 교체와 어간에 르ㄹ어미 첨가의 두 가지 성격을 지닌 혼합변화(混合變化: 상2단·하2단·ㄴ행변격·ㄱ행변격·ㅅ행변격)의 세 가지 관점에서 보면 혼합변화에서 약변화로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그 변화는 이미 나라(奈良: 710~794)·헤이안(平安: 794~1086)시대부터 1음절동사(연용형에 있어서 음절수를 의미한다. 이하, 동)를 중심으로 보이기 시작하여,¹⁾ 헤이안말(1086~1192)·가마쿠라(鎌倉: 1192~1333)시대의 점증기(漸增期)²⁾와 무로마치시대의 증가기(增加期), 에도초의 과도기 및 중기의 병용기를 거쳐 후기에 완료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와 같은 1단화의 전체적인 변화의 흐름 속에서 주목을 끄는 것은 무로마치시대 일 것이다. 왜냐하면 헤이안말·가마쿠라시대에 비해 용례의 증가와 더불어 당시 거의 완료된 중지·연체형의 합일화(合一化)현상에 의해 나름대로 체계적인 변화를 보이고 있고, 그 결과 제한적인 가운데 당시 자료에 따라서는 공시적(共時的)인 고찰이 비로소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후술하는 바와 같이 무로마치시대말의 기리시탄사전인 『닛포지쇼』(日葡辭書: 1603)의 표제어로 등장하는 어(語)가 대부분 2단활용어로 1단화어는 불과 5어 5예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통해 알 수 있듯이, 당시까지는 여전히 2단활용이 표준적인 어법으로 인식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바로 이 점이 『운포이로하슈』가 주목받는 이유이다. 『고본 세쓰요슈』(古本節用集)를 비롯한 당시 제 고사전과 기리시탄사전에 비해 1단화예가 비교적 많이 보이고 있어, 이를 통한 당시 1단화의 실태 및 진행 정도, 그리고 전체적인 경향 파악시, 자료적 가치가 인정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본래 사전의 성격 즉 전통적·규범적인 성격임을 고려할 경우 당시 1단화의 고찰시, 보다 객관적인 추론이 가능함과 동시에 상하2단활용동사의 1단화의 지속(遲速) 차이의 검토시, 중요한 단서를 제공해 준다는 점 또한 간과할 수 없는 이유 중의 하나이다.

지금까지의 선행 연구를 보면 모리 쇼이치(森昇一)³⁾·네가미 쓰요시(根上剛士)⁴⁾·사코노 후미노리(迫野度徳)⁵⁾ 등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1단화현상에 한정해 보면 부분적으로 용례의 누락이 인정되는 가운데 대부분 용례의 언급 내지는 약간의 기술 정도에 그쳐, 1단화의 전체적인 경향에 관한 구체적인 검토는 아직 이

루어지지 않은 상황인 듯 하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선행 연구에 의거하면서 『운포이로하슈』에 보이는 2단활용의 1단화현상에 대해 전 용례(全用例)를 중심으로 그 실태와 1단화의 진행 정도, 그리고 전체적인 경향을 당시 제 고사전 및 기리시탄사전과의 비교·검토를 통해 고찰하고자 한다.

고찰시, 저본(底本)으로서는 『세이카도문고본 운포이로하슈』(靜嘉堂文庫本運歩色葉集: 무로마치말 서사, 이하 운포이로하슈라고 약칭한다)⁶⁾를 사용하고, 비교 자료로서 당시의 고사전인 『다키다에이지장본 돈요슈』(瀧田英二藏本頓要集: 무로마치초, 이하 돈요슈라고 약칭한다) 『구나이초쇼료베장본 사쓰조슈』(宮内廳書陵部藏本撮壤集: 1454, 이하 사쓰조슈라고 약칭한다) 『마에다손케이카쿠장본 온코치신쇼』(前田尊經閣藏本溫故知新書: 무로마치중기, 이하 온코치신쇼라고 약칭한다) 등⁷⁾과 『분메이본 세쓰요슈』(文明本節用集: 1474~1490)⁸⁾, 그리고 『고본 세쓰요슈』 즉 『이쿄슈』(伊京集: 무로마치) 『메이오5년본 세쓰요슈』(明應5年本節用集: 1496) 『만주야본 세쓰요슈』(饅頭屋本節用集: 무로마치말) 『구로모토본 세쓰요슈』(黒本本節用集: 무로마치말) 『에키린본 세쓰요슈』(易林本節用集: 1597)⁹⁾ 『덴쇼18년본 세쓰요슈』(天正18年本節用集: 1590)¹⁰⁾ 등과 기리시탄사전인 『야소카이판 라쿠요슈』(耶蘇會板落葉集: 1598, 이하 라쿠요슈라고 약칭한다)¹¹⁾ 및 『호야쿠 닛포지쇼』(邦譯日葡辭書, 이하 닛포지쇼라고 약칭한다)¹²⁾를 이용하였다. 이 중에서 『분메이본 세쓰요슈』의 경우 아마우치 요이치로(山内洋一郎)의 논고¹³⁾에 의한 인용자료인데, 여기에 나타나는 1단화의 전체적인 경향을 후술하는 본서와의 비교·검토를 위해 요약하면 대체로 다음과 같다.

- ① 당시 고사전인 점을 감안하면 비교적 1단화율이 높고, 특히 1단화예가 압도적으로 다수 보인다.
- ② 상2단활용동사의 1단화율이 하2단활용동사의 1단화율보다 높다.
- ③ 음절수가 적은 쪽이 1단화율이 높다.
- ④ 야행(ア・ハ・ワ행 포함)동사의 1단화율이 가장 높고, 바・마・라행동사의 경우가 가장 낮게 나타난다.
- ⑤ 조동사의 1단화예는 보이지 않는다.

그런데 문제는 『분메이본 세쓰요슈』의 경우, 전술한 제 고사전 및 기리시탄사전과는

달리 성립연대, 편자, 편집방법, 언어와 편자와의 관계 등 자료성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불확실하고 여러 가지 의문점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이다.¹⁴⁾ 다시 말해 1단화의 고찰시 자료적 가치가 그 만큼 떨어지는 것이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면 본서를 통한 1단화의 고찰 결과는 매우 유용한 것으로 여겨진다 하겠다.

II. 2단활용의 1단화 실태

무로마치시대 이전 즉 헤이안말·가마쿠라시대에 보이는 2단활용의 1단화에는 총 10어 14예인데, 이 중에서 고사전에 등장하는 1단화에는 다음의 상1단화동사에 2어 2예, 하1단화동사 1어 2예로서 총 3어 4예에 불과한 상황이다.¹⁵⁾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상1단화동사에>

- 媚 コヒル (마에다본 이로지루이쇼<前田本色葉字類抄 : 1180>, 하5ㄱ3)
- 耄 コイル (류코쿠다이가쿠장본 지쿄슈<龍谷大學藏本字鏡集 : 1245>, 하16-3)

<하1단화동사에>

- 經 ヘル (마에다본 이로지루이쇼, 상52ㄱ3)
- 麗 ヘル <經⁷의 1단화> (간치인본 루이주묘기쇼<觀智院本類聚名義抄 : 1251>, 법하111-8)

이와 같은 점에서 보면 본서에 있어서 1단화의 상황은 주목된다. 전술한 바와 같이 1단화의 증가기에 해당되는 무로마치시대의 고사전이라는 점에서 시간적인 추이(推移)에 따른 1단화예의 증가가 예상되고, 그 결과 헤이안말·가마쿠라시대의 고사전을 통해 좀처럼 볼 수 없던 1단화의 전체적인 경향 파악이 어느 정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이다.

먼저 본서에 보이는 2단활용의 1단화의 실태를 살펴보면 당시의 1단화의 전체적인 경향의 반영으로 볼 수 있는 2단활용동사의 전용예(專用例)가 다수를 차지하고 또한 집중적으로 사용되는 경향이 보이는데,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荒(301-2)	茹(17-6)	受(208-6)	打寄(204-3)	虛(208-3)	産(208-7)
後(104-7)	溺(104-7)	欠(132-4)	撫(132-5)	桔(132-5)	消(333-8)
崩(226-1)	避(319-8)	棄(442-2)	育(171-5)	束(160-3)	解(71-7)

그러나 한편으로는 1·2단 양 활용동사에 즉,

和(302-3)-齋(294-7)	堙(208-8)-堙(50-6)	換(132-1)-替(133-4)	醒(319-5)
-縮(319-2) - 徵(436-3)-攻(436-2)	濟(160-4)-扶(159-5)	長經(186-2)-存(188-5)	

등과 같은 용례와 함께 1단활용동사의 전용예도 보이는데,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周章(293-4)	飢(208-6)	懸(132-2)	穎(131-6)	稱(132-2)	擲(133-5)
朽(225-8)	暮(225-7)	越(279-5)	拵(279-1)	礎(320-1)	澁(319-3)
絶(159-2)	捕(71-1)	緒(39-4)	經(58-5)		

이 외에도 본서에는 4단활용동사의 상1단화예(借<133-7>)와 상2단활용동사의 하1단화예(悔<226-1>)가 각각 1예씩 보이지만, 본고에서는 순수한 2단활용의 1단화현상만을 고찰하는 만큼 이는 조사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한다.

본서에 나타나는 2단활용의 1단화의 구체적인 실태 파악을 위해 1단화동사의 구체어를 <표1>로, 이를 통해 전체적인 경향 파악을 위한 1단화율을 동사와 조동사로 분류하여 <표2>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표1> 『운포이로하슈』에 있어서 1단화동사에¹⁶⁾

상1단화동사		하1단화동사	
<중지·연체형>	계	<중지·연체형>	계
		アハテル[周章·遽然](293-4)(293-5)	2
		アエル[齋](294-7)	1
		イロエル[色更](6-2)	1
		ウエル[飢·俄](208-6)	2
		ウメル[堙·填](208-8)	2
		カヘル[替](133-4)	1
		カケル[懸·掛·繫](132-2)	3
		カサネル[重](132-2)	1
カビル[穎·稔](131-6)(131-7)	2	カスメル[掠](131-8)	1

상단화동사		하단화동사	
<중지·연체형>	계	<중지·연체형>	계
クチル[朽·腐](225-8)	2	カマヘル[稱·愜](132-2)	2
		カラメル[搦·勒·絡](133-5)	3
		クレル[暮·晚](225-7)	2
		코ヘル[肥](279-1)	1
		코ヘル[越·超·踰](279-5)(279-6)	3
		코시라엘[拵·誘](279-1)(279-2)	2
코빌[媚](279-4)	1	코멜[和](275-9)	1
사빌[澁·衣·精·鈍](319-3)	4	사ヘル[礎·碍·障](320-1)	3
		사멜[締](319-2)	1
		스엘[餽](442-5)	1
		세멜[攻·靑](436-2)	2
		소켈[蔽](171-7)	1
		소멜[染](171-3)	1
		타엘[絶·斷](159-2)	2
타스켈[扶·助·輔·翼·臣](159-5)	5		
하치르[恥·慙·愧·羞·辱](38-3)	5	츠멜[詰·攻·定](177-6)	3
		트라엘[浦·幽·圀](71-1)	3
		나加拉ヘル[存](188-5)	1
		하헬[緒·延](39-4)	2
		하넬[芻](38-2)	1
합 계	5어 14예	히itel[秀](417-6)	1
		헬[經·歷](58-5)	2
		헬[綜](58-6)	1
		마켈[枉](239-8)	1
합 계	5어 14예	합 계	33어 59예

* 조동사의 1단화 예는 보이지 않는다.

<표2> 『운포이로하슈』에 있어서 1단화율¹⁷⁾

활용 자 료 용 형	동사						동사합계			조동사합계			총계			
	상2			하2			2단	1단	%	2단	1단	%	2단	1단	%	
	2단	1단	%	2단	1단	%										
분메이분 세쓰요슈 (1474~ 1490)	지·체	87 <15>	118 <17>	57.6 <53.1>	1928 <218>	401 <83>	17.2 <27.6>	2015 <233>	519 <100>	20.5 <30.0>	17		0	2032	519	20.3
	이															
	계	87 <15>	118 <17>	56 <53.1>	1928 <218>	401 <83>	17.2 <27.6>	2015 <233>	519 <100>	20.5 <30.3>	17		0	2032	519	20.3
운포이로 하슈 (1547~ 1548)	지·체	20 <13>	14 <5>	41.2 <27.8>	338 <175>	59 <33>	14.9 <15.9>	358 <188>	73 <38>	16.9 <16.8>	5		0	363	73	16.7
	이															
	계	20 <13>	14 <5>	41.2 <27.8>	338 <175>	59 <33>	14.9 <15.9>	358 <188>	73 <38>	16.9 <16.8>	5		0	363	73	16.7

*지·체는 중지형과 연체형, 이는 이연형을 의미한다.

< >는 별개어수

Ⅲ. 1단화의 전체적인 경향

전술한 <표1>의 1단화의 구체어와 <표2>의 1단화율을 통해 본서에 보이는 1단화의 전체적인 경향으로서는 대체로 다음과 같은 점이 인정된다.

- ① 당시 고사전과 기리시탄사전에 비해 1단화율이 높고, 특히 1단화예가 다수 보인다.
- ② 동사의 1단화는 조동사의 1단화보다 빠르다.
- ③ 야행동사의 1단화예가 비교적 많이 보인다.
- ④ 동사의 경우, 음절수의 다소(多少)에 따른 1단화의 지속 차이가 인정되고, 특히 1음절동사의 1단화는 2음절동사 이상의 1단화보다 진일묘한 양상을 보인다.
- ⑤ 상2단활용동사의 1단화는 하2단활용동사의 1단화보다 빠르다.

먼저 경향①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당시 자료와의 비교·검토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당시 제 고사전과 기리시탄사전에 등장하는 1단화예를 <표3>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표3> 고사전과 기리시탄사전에 있어서 1단화동사에

어		1 단 화 동 사 예	
자 료			
고	『돈요슈』(무로마치초)	①綜 <u>ヘル</u> (26-4)	②關 <u>ソバメル</u> (48-4)
	『이쿄슈』(무로마치)	③駈 <u>ハネル</u> (10-2) ⑤茹 <u>ユデル</u> (103-2)	④布 <u>ハメル</u> (70-4)
	『사쓰조슈』(1454)	⑥繼 <u>ヘル</u> (173-8)	
사	『운주치신쇼』(무로마치중기)	⑦叉 <u>アザヘル</u> (11-8)	⑧衰 <u>オトロヘル</u> (259-2)
		⑨弱 <u>カラメル</u> (50-6)	⑩癩 <u>キズツケル</u> (62-6)
		⑪泗州 <u>スエル</u> (118-1)	⑫餓 <u>スエル</u> (118-1)
		⑬戶 <u>ヘル</u> (202-6)	⑭利 <u>ナメル</u> (164-2)
		⑮罵 <u>ナメル</u> (164-2)	⑯臥 <u>フセル</u> (198-3)
		⑰强 <u>シイル</u> (210-6, 상1)	
		⑱强 <u>シイル</u> (161-5, 상1)	
『만주야본 세쓰요슈』(무로마치말)	⑲經 <u>ヘル</u> (26-2)		
전	『구로모토본 세쓰요슈』 (무로마치말)	⑳攻 <u>セメル</u> (202-7)	㉑經 <u>ヘル</u> (30-5)
		㉒歷 <u>ヘル</u> (30-5)	㉓召上 <u>メシアゲル</u> (169-6)
	『에키린본 세쓰요슈』(1597)	㉔强 <u>シヒル</u> (219-4, 상1) ㉖經 <u>ヘル</u> (39-1)	㉕禿 <u>チビル</u> (55-1, 상1) ㉗歷 <u>ヘル</u> (39-1)

어		1 단 화 동 사 예			
자 료					
기 리 시 탄 사 전	『라쿠요슈』 (1598)	㉘得 える (12-1)	㉙得 える (16-7)	㉚得 える (18-8)	
		㉛得 える (20-3)	㉜得 える (44-1)	㉝得 える (45-2)	
		㉞得 える (47-6)	㉟得 える (54-7)	㊱得 える (62-8)	
		㊲得 える (63-5)	㊳得 える (66-8)	㊴得 える (76-4)	
		㊵得 える (83-1)	㊶得 える (85-4)	㊷得 える (86-4)	
		㊸得 える (93-5)	㊹得 える (98-6)	㊺得 える (105-3)	
		㊻得 える (108-6)	㊼得 える (110-2)	㊽得 える (206-1)	
		㊾得 える (168-2)	㊿經 へる (21-4)	㊿經 へる (61-2)	
		『닛포지쇼』 (1603)	㉡abiru (浴 びる · 7r, 상1)	㉢Xijru (強 びる · 764r, 상1)	
			㉣chibiru (禿 びる · 118r, 상1)	㉤feru (經 る · 219l)	
㉥feru (綜 る · 219l)					

*상1은 상1단화동사를 의미하고, 나머지는 하1단화동사를 의미한다.

*조동사의 1단화예는 보이지 않는다.

이상, <표3>의 제 고사전 및 기리시탄사전(고사전과 기리시탄사전의 경우, 1단화율이 매우 낮아 모두 한 자리수의 1단화율에 머문다)과의 비교를 통해 <표2>의 본서에 보이는 연어수(이하, 특별한 언급이 없는 경우는 연어수를 의미한다)에 있어서 1단화율(16.7%)은 주목되고, 특히 1단화예의 증가 및 다양성이라는 점에서 보면 더욱 그 차이가 두드러진다 하겠다. 각 자료의 성격 즉 구어성(口語性)의 반영¹⁸⁾과 성립시기(단, 당시 사전의 경우 전술한 제 자료의 1단화예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시간적인 추이에 따른 급격한 1단화예의 증가는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제 자료간의 분량 차이에 따른 1단화예의 출현 빈도수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 해도 본서의 우위는 여전히 인정되고 특징적인 경향으로서 나타나기 때문이다. 자료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 점이 본서가 주목받는 주된 이유 중의 하나로 여겨진다. 다시 말해 단일 자료로서는 <표3>의 고사전과 기리시탄사전에 비해 1단화예(38어 73예)의 우위가 인정되고, 특히 이를 통해 당시 1단화의 전체적인 경향 파악이 어느 정도 가능하고, 또한 본래의 사전의 전통적·규범적인 성격을 감안하면 보다 객관적인 추론이 가능할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점에서 보면 경향①은 <표2>를 통해 알 수 있듯이 『분메이본 세쓰요슈』에 보이는 1단화의 경향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성립시기가 앞선 『분메이본 세쓰요슈』가 본서보다 1단화예(100어 519예)의 경우는 압도적인 우위를, 1단화율(20.3%)의 경우는 동등 내지는 약간의 우위를 보인다는 점이다. 전자의 경우는 양 자료간의 분량 차이에 기인한다고 해도, 후자의 경우는 1단화의 사적 고찰시 자칫 모순점을 보

이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는 『분메이본 세쓰요슈』의 자료성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미 전술한 바와 같이 『분메이본 세쓰요슈』의 경우, 자료성이라는 점에서 보면 불확실하고 여러가지 의문점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경향②는 <표2>를 통해 알 수 있듯이 비교 자체가 무의미하다고 볼 수 있을 만큼 현저한 경향으로서 나타나, 지금까지 알려진 일본어사적(日本語史的)인 사실과 일치한다. 다시 말해 동사의 1단화율은 73 대 358(16.9%)로서 1단화예의 존재 자체를 볼 수 없는 조동사의 1단화율 즉 0 대 5(0%)인 상황과 좋은 대조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점에서 보면 경향②는 0 대 17(0%)의 상황인 『분메이본 세쓰요슈』는 물론 조동사의 1단화예가 보이지 않는 <표3>의 고사전 및 기리시탄사전과도 일치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조동사의 1단화예는 헤이안말·가마쿠라시대까지는 전무한 상황이고¹⁹⁾, 무로마치시대 또한 그 용례는 매우 드문데, 특히 고사전의 경우 거의 그 용례를 찾아볼 수 없는 상황이다. 도고쿠어(東國語)자료일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된 『겐키2년본 운포이로하슈』(元龜2年本運歩色葉集)²⁰⁾에 보이는 「シメル」가 눈에 띄는 정도이다.

⑤7 渾沌 コントシ マロカレシメル 日本

(겐키2년본 운포이로하슈<1571년 서사>, 교토(京都)대학 문학부 국어국문학 연구실편, =52ウ9)

이처럼 조동사의 1단화가 동사의 1단화보다 늦은 주된 원인은 수동(受動) 또는 사역(使役)으로서 의식적으로 사용됨과 동시에 동사와 결합한 형태 전체가 하나의 언어단위, 즉 다음절(多音節)로 인식된 결과에 기인한다²¹⁾고 생각된다. 다음절동사의 1단화가 소음절(少音節)동사의 1단화보다 늦다는 사실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다. 이는 후술하는 본서의 경향④를 통해서도 알 수 있을 것이다.

경향③은 야행동사의 경우 타행(他行)동사보다 1단화의 경향이 강하다²²⁾는 일본어사적인 사실과 대체로 일치한다. 이는 <표1>의 실태 즉 1단화예 중 상2단활용동사의 1단화예를 제외한 하2단활용동사의 1단화예를 중심으로 보면 전체적인 경향으로서 인정됨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점에서 보면 경향③은 『분메이본 세쓰요슈』는 물론 <표3>의

고사전 중 『온코치신쇼』 『메이오5년본 세쓰요슈』 『덴쇼18년본 세쓰요슈』 『에키린본 세쓰요슈』 등과 기리시탄사전인 『닛포지쇼』와도 대체로 일치한다고 생각된다.

한편 본서의 경우 야행동사의 1단화와는 달리, 활용행(活用行) 중에서 1단화가 가장 늦다고 일컬어지는 라행동사의 1단화²³⁾에는 「クレル」(2) 외에는 용례가 보이지 않아, 활용행에 따른 1단화의 지속 차이가 전체적인 경향으로서 인정된다. 이와 같은 경향은 『분메이본 세쓰요슈』와 대체로 일치하는 가운데, 용례 자체를 확인할 수 없는 고사전 및 기리시탄사전에는 더욱 심화되어 나타난다.

경향④ 또한 나라·헤이안시대와 헤이안말·가마쿠라시대, 더 나아가 에도초·중기 및 중기 이후를 통해서도 인정되는 이른바 소음절동사의 1단화는 다음절동사의 1단화보다 빠르다²⁴⁾는 일본어사적인 사실과 일치한다 하겠다. 실제로 본서에 있어서 소음절동사 특히 1음절동사의 경우 <표1> (「へル」 <經> 「へル」 <歷> 「へル」 <綜> 등)을 통해 알 수 있듯이 그 경향이 강하게 나타난다. 1음절동사의 경우 예를 들면,

寢 ヌル(92-2)

寐 ヌル(92-2)

등과 같이 2단활용동사에도 2예 보이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1음절동사의 1단화율은 3 대 2(60.0%)로서 2음절동사 이상의 70 대 356(16.4%)보다 현저한 우위를 보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경향은 단지 본서뿐만 아니라 <표3>에 보이는 고사전(『돈요슈』 『사쓰조슈』 『만주야본 세쓰요슈』 『구로모토본 세쓰요슈』 『에키린본 세쓰요슈』 등) 및 기리시탄사전(『라쿠요슈』 『닛포지쇼』 등)의 상황, 즉 1음절동사의 1단화예가 단독 내지는 집중적으로 보이는 상황과 일치하고, 1음절동사의 1단화율이 72 대 25(74.2%)로서 2음절동사 이상의 447 대 1990(18.3%)보다 현저한 우위를 보이는 『분메이본 세쓰요슈』의 상황과도 일치한다. 더 나아가 이와 같은 경향은 당시의 기리시탄자료인 『아마쿠사관 헤이케 모노가타리』(天草版平家物語 : 1592) 및 『아마쿠사관 이소호모노가타리』(天草版伊曾保物語 : 1593)의 상황, 즉 1음절동사 「へル」 <經>²⁵⁾를 제외하고는 모두 2단활용예로 등장하는 상황을 통해서도 엿볼 수 있는 만큼 당시의 현저한 경향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참고로 『분메이본 세쓰요슈』에 보이는 1음절동사의 1단화예를 몇 예 들어보면 다음

과 같다.

㉘得 エル (분메이본 세쓰요슈, 17-5) ㉙經 へル (동, 123-7) ㉚歷 へル (동, 381-6)

경향⑤는 상2단활용동사의 1단화율이 연어수(41.2%) 및 별개어수(27.8%)에 있어서 하2단활용동사의 1단화율인 연어수(14.9%) 및 별개어수(15.9%)보다 높게 나타나는 만큼 특징적인 경향으로서 인정된다 하겠다. 이처럼 상2단활용동사의 1단화가 하2단활용동사의 1단화보다 빠른 이유는 상1단활용동사의 경우 이미 나라시대부터 하나의 형태로서 확립되어 있었던 데 비해, 하1단활용동사의 경우는 이보다 늦은 헤이안시대에 들어서 겨우 「蹴る」만이 하나의 형태로서 등장한 것과 깊은 관계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²⁶⁾

특히 경향⑤는 당시 제 자료를 통해서도 상1단화동사어가 극소수에 지나지 않거나 용례 자체를 볼 수 없는 경우가 있어, 자칫 하2단활용동사의 1단화는 상2단활용동사의 1단화보다 빠른 것으로 여겨질 수도 있다는 점에서 본서의 상황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하겠다. 무로마치시대 또한 일본어사적인 사실 즉 상2단활용동사의 1단화는 하2단활용동사의 1단화보다 빠르다는 추론이 본서를 통해 더욱 가능한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그런데 문제는 하2단활용동사의 1단화예(33어 59예)가 상2단활용동사의 1단화예(5어 14예)보다 많이 보인다는 점이다. 그러나 본래 상2단활용동사의 수보다 하2단활용동사의 수가 압도적으로 많다는 점을 고려하면 본서의 이와 같은 상황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본다.

실제로 에도초기의 유력한 도고쿠어자료인 『미카와모노가타리』(三河物語 : 1622~1626)와 『조효모노가타리』(雜兵物語 : 1657~1683)의 경우 하2단활용동사는 상2단활용동사에 비해, 연어수와 별개어수에 있어서 전자는 6 대 1 및 12 대 1²⁷⁾, 후자는 10 대 1 및 9 대 1²⁸⁾로 모두 현저한 우위를 보인다. 특히 『조효모노가타리』의 경우 모두 하1단화동사에로서 상1단화동사는 1예도 보이지 않는 상황인데,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いへる<1>	うちわすれる<2>	うつきれる<1>	うろたへる<1>	おくれる<1>
教へる<1>	かたける<1>	かけれ<1>	さける<1>	しかねる<1>
しつめる<1>	つけれ<1>	つんぬける<2>	でる<1>	ひつかけれ<1>
ひつつける<1>	ひつつけれ<1>	ふんまける<1>	やせる<1>	

(나이카쿠(内閣)문고장본 조효모노가타리)

또한 헤이안시대의 『고후쿠지장본 다이진온지산조호시덴』(興福寺藏本大慈恩寺三藏

法師傳 : 헤이안시대말)과 『겐지모노가타리』(源氏物語 : 999~1014)에 있어서도 동사의 어휘 중 하2단활용동사가 차지하는 비율은 188어(24.0%) 및 1570어(29.4%)로 상2단활용동사의 28어(3.7%) 및 138어(2.6%)를 압도하는 상황이고²⁹⁾, 더 나아가 나라·헤이안시대와 헤이안말·가마쿠라시대, 에도초·중기의 상황, 게다가 오늘날도 규슈(九州)방언에서는 2단활용이 사용되고 있으나 그 중에서도 특히 상2단활용동사는 1단화의 형태로 사용되는 지역이 많다는 점³⁰⁾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이와 같은 점에서 보면 <표3>의 고사전 중 『메이오5년본 세쓰요슈』 및 『덴쇼18년본 세쓰요슈』에 보이는 「シイル」 <強>, 『에키린본 세쓰요슈』에 보이는 「シイル」 <強> 「チビル」 <禿>, 기리시탄사전인 『닛포지쇼』에 보이는 「浴びる」 「強ひる」 「禿びる」 등의 상2단활용동사의 1단화예는 주목된다. 단독 내지는 집중적으로 등장하고 있어, 전체적으로 보면 본서와 경향을 같이 하는 것으로 이해되기 때문이다. 또한 경향⑤는 상2단활용동사의 1단화율이 연어수(57.6%) 및 별개어수(53.1%)에 있어서 하2단활용동사의 1단화율인 연어수(17.2%) 및 별개어수(27.6%)보다 우위를 보이는 『분메이본 세쓰요슈』의 경향과도 일치한다 하겠다. 참고로 『분메이본 세쓰요슈』에 보이는 상2단활용동사의 1단화예를 몇 예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⑥1 生 イキル	(분메이본 세쓰요슈, 72-7)	⑥2 落 ヲチル	(동, 103-1)
⑥3 腐 クチル	(동, 340-3)	⑥4 戀 コイル	(동, 1053-6)
⑥5 誣 シイル	(동, 1025-3)	⑥6 過 スギル	(동, 67-1)
⑥7 閉 トチル	(동, 118-3)	⑥8 佗 ワビル	(동, 320-5)

이상, 본서에 보이는 1단화의 전체적인 경향을 살펴보았는데, 특히 『분메이본 세쓰요슈』와 비교시, 경향①②③④⑤의 모든 경우에 있어서 가장 유사한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제 고사전 및 기리시탄사전 또한 자료에 따라 정도 차이가 인정되는 가운데 전체적으로 보면 경향①을 제외한 경향②③④⑤의 경우는 본서와 대체로 일치한다고 여겨진다.

그러나 본서는 적어도 1단화의 고찰시, 용례의 다수 출현으로 인해 단일 자료로서 공식적인 고찰이 가능하고, 이를 통해 무로마치시대에 있어서 1단화의 전체적인 경향 파악을 위해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자료라는 점에서 전술한 고사전 및 기리시탄사전에 비해 자료적 가치가 상대적으로 높다고 생각된다. 『분메이본 세쓰요슈』의 자료성에 여러 가지 의

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인 만큼 더욱 그러하다.

IV. 결론

지금까지 『운포이로하슈』에 보이는 2단활용의 1단화현상에 대해 전 용례를 중심으로 그 실태와 1단화의 진행 정도, 그리고 전체적인 경향을 무로마치시대의 제 고사전인 『분메이본 세쓰요슈』를 비롯한 『돈요슈』 『이쿄슈』 『사쓰조슈』 『온코치신쇼』 『메이오5년본 세쓰요슈』 『덴쇼18년본 세쓰요슈』 『만주아본 세쓰요슈』 『구로모토본 세쓰요슈』 『에키린본 세쓰요슈』 등과 기리시탄사전인 『라쿠요슈』 『닛포지쇼』 등과의 비교·검토를 통해 고찰해 보았다.

그 결과, 1단화의 전체적인 경향으로서 인정되는 몇 가지 특징적인 사실을 지적할 수 있었는데, 이를 요약하면 대체로 다음과 같다.

- ① 당시 고사전과 기리시탄사전에 비해 1단화율(16.7%)이 높고, 1단화예가 다수(38어 73예) 보인다.
- ② 동사의 1단화(16.9%)는 조동사의 1단화(0%)보다 빠르다.
- ③ 야행동사의 1단화예가 비교적 많이 보인다.
- ④ 동사의 경우, 음절수의 다소에 따른 1단화의 지속 차이가 보이고, 특히 1음절동사의 1단화(60.0%)는 2음절동사 이상의 1단화(16.4%)보다 진일보한 양상을 보인다.
- ⑤ 상2단활용동사의 1단화(41.2%)는 하2단활용동사의 1단화(14.9%)보다 빠르다.

이처럼 본서를 통해 나타나는 1단화의 전체적인 경향 중 ②③④⑤는 일본어사적인 사실과 대체로 일치한다고 볼 수 있는데, 여기에서 특히 주목을 끄는 것은 경향①과 ⑤이다. 경향①은 자료성에 문제가 있는 『분메이본 세쓰요슈』를 제외한 당시 제 고사전 및 기리시탄사전에 비해 현저한 우위를 보여 단일 자료로서 공식적인 고찰이 가능하고, 그 결과 무로마치시대에 있어서 1단화의 전체적인 경향 파악시 유용하다는 점에서, 경향⑤는 상하2단활용동사의 1단화의 지속 차이의 검토시, 문제가 되는 당시 또한 상2단활용동사의 1

단화는 하2단활용동사의 1단화보다 빠르다는 일본어사적인 사실을 입증하는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해 준다는 점 때문이다.

금후는 본고의 결과를 토대로 당시의 도고쿠어자료 및 중앙어(中央語)계 쇼모노(抄物) 등과의 비교를 통해, 무로마치시대에 있어서 2단활용의 1단화현상에 대한 전체적인 고찰에 중점을 두어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注】

- 1) 1음절동사의 1단화예로서 나라시대에는 「ミル」〈廻〉, 헤이안시대에는 「キル」〈居〉 「ヒル」〈干〉 「ヒル」〈嘆〉 「ヒル」〈簸〉 등이 보인다.
- 2) 金銘均 「平安末・鎌倉時代に 있어서 二段活用の 一段活用化現象 -一段活用化例の再檢討와 全體的인 傾向을 中心으로-」(『日本語文學』 第10輯, 韓國日本語文學會, 2001)에 의하면 상2단활용동사의 1단화예로서 6어 7예(「コヒル」〈前田本色葉字類抄〉 「スギル」〈中山法華經寺藏本三教指歸注〉 「學」 「學ビル」 「尊ビル」〈觀智院本世俗諺文〉 「悔」〈高山寺藏論語〉 「耄ヲイル」〈字鏡集〉 등), 하2단활용동사의 1단화예로서 4어 7예(「絲 ヘル」〈和歌初學抄〉 「經 ヘル」〈前田本色葉字類抄〉 「麗 ヘル」〈觀智院本類聚名義抄〉 「サカヘル」〈中山法華經寺藏本三教指歸注〉 「あたへる」〈假名文書: 3예〉 등)가 지적된다.
- 3) 森昇一 「靜嘉堂文庫本運歩色葉集の語法」(『文學・語學』 27號, 1963)
- 4) 根上剛士 『中世古辭書4種研究並びに總合索引・影印篇』(解説, 風間書房, 1971), pp.36~37.
- 5) 迫野虔徳 「東國文獻と言語指標-『天正狂言本』における「借りる」をめぐる-」(『北九州大學文學部紀要』 7號, 1971)
- 6) 中田祝夫・根上剛士 『中世古辭書4種研究並びに總合索引・影印篇』(風間書房, 1971)
- 7) 中田祝夫・根上剛士, 전게서(6)
- 8) 中田祝夫 『改訂新版文明本節用集研究並びに索引・影印篇』(勉誠社, 1979)
- 9) 中田祝夫 『改訂新版古本節用集6種研究並びに總合索引・影印篇』(勉誠社, 1979)
- 10) 山田忠雄 『天正18年本節用集』(東洋文庫, 1971)
- 11) 小島幸枝 『耶蘇會板落葉集總索引』(笠間書院, 1978)
- 12) 土井忠生譯 『邦譯日葡辭書』(岩波書店, 1980)
- 13) 山内洋一郎 「廣本節用集に見える二段活用動詞の一段化について」(『國語史への道・上』, 土井先生頌壽記念刊行會, 三省堂, 1981), pp.281~310.
- 14) 山内洋一郎, 전게서(13), p282.
- 15) 金銘均, 전게서(2)
- 16) 1단화예의 조사시, 예를 들면 「絶斷」의 「斷」과 같이 「同」의 부호가 붙어있는 용례는 「絶」와 마찬가지로 1단화예로서 취급하였다.
- 17) 『분메이본 세쓰요슈』의 1단화예는 「운포이로하슈」와의 비교를 위해 전게서(13)을 참고로 하여, 구(句) 속에 포함된 1단화예를 제외하고 재분석한 결과이다(이하, 동).
- 18) 春日政治 「國語史上の一畫期 -文祿伊曾保を中心とした語法-」(『春日政治著作集3』, 勉

- 誠社, 1983, p.275)에 의하면 『세쓰요슈』의 경우, 문어성(文語性)이 지적된다.
- 19) 金鎔均, 전게서(2)
 - 20) 迫野虔徳 「『京大圖書館藏元龜2年本運歩色葉集』について」(『國語國文』42卷7號, 1973)
 - 21) 峰谷清人 「狂言古本に見られる一段活用化の現象」(『國語學』74集, 1968)
 - 22) 柳田征司 「活用から見た抄物の語彙」(『愛媛大學教育學部紀要』第5卷1号, 1973)
 - 23) 坂梨隆三 「近松世話物における二段活用と一段活用」(『國語と國文學』10月号, 1970)
 - 24) 金鎔均, 전게서(2)
 - 金鎔均 「근세초기 가미가타어(上方語)에 있어서 2단활용의 1단활용화현상에 대한 일고찰-중기 가미가타어와 비교를 중심으로-」(『日本文化研究』第6輯, 韓國日本學協會, 2002)
 - 25) 양 자료에 보이는 1음절동사의 1단화의 구체적인 예문을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 名所名所をござらうぜられて日數へれば、駿河の國浮島にかからせらるるに
(『ハビヤン抄キリシタン版平家物語』, 吉川弘文館, 1966, p.302)
 - 日數を經るほどに、次第に四肢六根は弱り果て、進退ここに窮つた
(『文祿2年耶蘇會版伊曾保物語』, 京都大學文學部國文學研究室編, 1963, p.39)
 - 26) 山口佳紀 「活用の變遷」(『別冊國文學』38号, 1990)
 - 27) 金鎔均 「『三河物語』における二段活用の一段化現象」(『中央大學文學研究科大學院研究年報』第25号, 1996)
 - 28) 金鎔均 「『雜兵物語』에 있어서 二段活用の 一段活用化現象 -東國語資料 및 上方語資料와 比較를 中心으로-」(『日本語學研究』第1輯, 韓國日本語學會, 1999)
 - 29) 築島裕 『平安時代の漢文訓讀語につきての研究』(東京大學出版會, 1963), pp.541~542.
 - 30) 奥村三雄 「所謂二段活用の一段化について-方言的事實から史的考察へ-」(『近代語研究』第2輯, 近代語學會編, 1968), p.222.

【參考文獻】

- 岩井良雄 『日本語法史・室町時代編』(笠間書院, 1973)
- 奥村三雄 「所謂二段活用の一段化について-方言的事實から史的考察へ-」(『近代語研究』第2輯, 近代語學會編, 1968)
- 春日政治 「國語史上の一畫期 -文祿伊曾保を中心とした語法-」(『春日政治著作集 3』, 勉誠社, 1983)
- 龜井孝 「言語史上の室町時代」(『龜井孝論文集5・言語文化くさぐさ』, 吉川弘文館, 1986)
- 小島幸枝 『耶蘇會板落葉集總索引』(笠間書院, 1978)
- 坂梨隆三 「近松世話物における二段活用と一段活用」(『國語と國文學』10月号, 1970)
- 迫野虔徳 「東國文獻と言語指標-『天正狂言本』における「借りる」をめぐって-」(『北

九州大學文學部紀要』7號, 1971)

迫野虔徳 「『京大圖書館藏元龜2年本運歩色葉集』について」(『國語國文』42卷 7號, 1973)

築島裕 『平安時代の漢文訓讀語につきての研究』(東京大學出版會, 1963)

土井忠生譯 『邦譯日葡辭書』(岩波書店, 1980)

土井洋一 『近代の文法 I』(『講座國語史4・文法史』, 大修館書店, 1982)

中田祝夫 『改訂新版文明本節用集研究並びに索引・影印篇』(勉誠社, 1979)

中田祝夫・根上剛士 『中世古辭書4種研究並びに総合索引・影印篇』(風間書房, 1971)

峰谷清人 『改訂新版古本節用集6種研究並びに総合索引・影印篇』(勉誠社, 1979)

中田祝夫 「狂言古本に見られる一段活用化の現象」(『國語學』74集, 1968)

松村明 「日本語の展開」(『日本語の世界2』, 中央公論社, 1986)

森昇一 「靜嘉堂文庫本運歩色葉集の語法」(『文學・語學』27號, 1963)

柳田征司 「活用から見た抄物の語彙」(『愛媛大學教育學部紀要』第5卷 1号, 1973)

柳田征司 『室町時代の國語』(東京堂出版, 1985)

山田忠雄 『天正18年本節用集』(東洋文庫, 1971)

山内洋一郎 「廣本節用集に見える二段活用動詞の一段化について」(『國語史への道・上』, 土井先生頌壽記念刊行會, 三省堂, 1981)

湯澤幸吉郎 『室町時代言語の研究』(風間書房, 1981)

金鎔均 「『三河物語』における二段活用の一段化現象」(『中央大學文學研究科大學院研究年報』第25号, 1996)

金鎔均 「『雜兵物語』에 있어서 二段活用の 一段活用化現象-東國語資料 및 上方語資料와 比較를 中心으로-」(『日本語學研究』第1輯, 韓國日本語學會, 1999)

金鎔均 「平安末・鎌倉時代に 있어서 二段活用の 一段活用化現象-一段活用化例의 再檢討와 全體的인 傾向을 中心으로-」(『日本語文學』第10輯, 韓國日本語文學會, 2001)

金鎔均 「근세초기 가미가타어(上方語)에 있어서 2단활용의 1단활용화현상에 대한 일고찰 -중기 가미가타어와 比較를 中心으로-」(『日本文化研究』第6輯, 韓國日本學協會, 2002)

『運歩色葉集』に見られる二段活用の一段化現象 についての一考察

-諸古辭書及びキリシタン辭書との比較を中心に-

金 鎔 均

本稿では室町時代の古辭書のうち、就中一段化例が割と多く現れると同時に本来における辭書の性格、つまり傳統的・規範的であることを考慮する場合、より客觀的推論が可能であるという立場から『運歩色葉集』に見られる二段活用の一段化現象について考察してみた。考察方法は本書における全用例を中心にしてその實態と一段化の進行程度、更に全體的傾向を『文明本節用集』をはじめとする、當時の諸古辭書(『瀧田英二藏本頓要集』『伊京集』『宮内廳書陵部藏本撮壤集』『前田尊經閣藏本溫故知新書』『明應5年本節用集』『天正18年本節用集』『饅頭屋本節用集』『黒本本節用集』『易林本節用集』等)とキリシタン辭書(『耶穌會板落葉集』『日葡辭書』等)との比較・検討を通して行った。その結果、一段化の全體的傾向として認められる、幾つの特徴的事實が指摘できたかのように思う。これをまとめると、大略次のようである。

- ①當時の諸古辭書とキリシタン辭書に比べて一段化率(16.7%)が高く、一段化例(38語73例)が多く見られる。
- ②動詞の一段化(16.9%)は助動詞の一段化(0%)より早い。
- ③や行動詞の一段化例が比較的多く見られる。
- ④動詞の場合、音節数の多少による一段化の遅速差が認められる中で、就中一音節動詞の一段化(60.0%)は二音節動詞以上の一段化(16.4%)より進歩した様相を見せる。
- ⑤上二段活用動詞の一段化(41.2%)は下二段活用動詞の一段化(14.9%)より早い。

このように本書に見られる一段化の全體的傾向の中で、傾向②③④⑤は日本語史的事實と大體一致すると思うが、ここで特に注目を引くのは傾向①と⑤である。傾向①は資料性に問題のある『文明本節用集』を除く、當時の諸古辭書とキリシタン辭

書に比べて顕著な優位を見せるとともに単一資料として共時的考察が可能になった結果、室町時代における一段化の全體的傾向を考察する場合、非常に有益であり、傾向⑤は上下二段活用動詞の一段化の遅速差の考察の場合、問題になる當時もまた、上二段活用動詞の一段化は下二段活用動詞の一段化より早いという日本語史的事實を立證する、重要な糸口を提供してくれるからである。今後はこのような結果に基づいて、更に當時の東國語資料及び中央語系抄物類との比較を通して室町時代における二段活用の一段化現象についての全體的考察に重點を置き、よりつっこんだ研究を進めたいと思う。